

풍만한 민족적정서, 섬세한 예술적기교

- 제2차 전국조각, 공예축전장을 돌아보고 -



얼마전 옥류전시관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돌경축 제2차 전국조각, 공예축전은 민족고유의 정서와 섬세한 예술적기교를 엿볼수 있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이번 축전에는 공화국의 미술창작기관 조각가, 공예사들과 애호가들, 각급 대학, 학교 학생들과 유치원어린이들이 창작한 수백여점의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이번 축전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생활풍습을 형상화한 조각, 공예작품들이었다. 석고조각 <애국자 문익점>은 고려미술창작자의 박성국이 창작한 작품이다. 누구나 문익점이라고 하면 목화를 떠올리고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애국심을 읽어보게 된다. 기자와 만난 장현철 문화성 과정은 이렇게 말했다. <이 조각은 나라위한 길에서 변함없이 억울 의지를 보여주는 근엄한 얼굴표정과 한손에 들어온 붓대의 형상으로 애국의 마음을 지닌 인물의 형상을 세련된 수법으로 잘 형상화했다.>

70살이 넘는 교령의 나이에 나라를 위해 왜적과의 싸움에 과감히 나선 시산대사를 형상화한 목공예 <시산대사>는 향산군 향산 웃옷공장 노동자 기영훈이 창작한 작품이다. 조형성과 예술성이 잘 결합된 작품에서는 몸전체가 기백있게 솟구쳐오르는 형상과 장점을 차고 높이 쳐든 손, 백발을 날리며 왜적을 무찌르는 성전으로 모두를 부르는 시산대사의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고려미술창작사 한도철, 리광일의 작품인 목공예 <거북선>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전통적인 생활풍습과 미감향을 보여주는 인두화 <풍속도>, <농악무>, <소물이군>과 역사유적들이 <다보탑>과 <13층탑>을 정교하고 섬세한 금속공예품으로 형상화한 작품들도 축전장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축전장을 돌아볼수록 조선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이 가슴뿌듯이 새겨졌다. 본사기자 김진혁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 여자유술계의 강자 김진아. 2019년에 진행되었던 국제여자유술경기대회에서 조선의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가 뛰어난 금메달을 쟁취하였을 때 세계유술계는 법적 놀랐다. 그가 바로 김진아이다. 평양시 랑구구역의 평범한 노동자가장에서 막내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고 성적이 쾌활하면서도 침착한것으로 하여 선생님과 동무들의 사랑을 받았다. 청소년체육학교에서 유술을 배우기 시작한 그녀는 평양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하면서 2011년에 진행된 아시아 청년 및 청소년유술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는 2019년 아시아태평양유술선수권대회에서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이 대회는 아시아와 오세안주 여러 나라들에서 온 기량이 높고 모험한 선수들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큰 규모에서 진행되었다. 19명의 선수가 참가한 여자 57kg급경기에서 맛따드는 선수들을 모두 물리친 그는 결승경기에서 일본선수와 대전하게 되었다. 일본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전적을 가진 몽골선수를 이기고 결승경기에 올라온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이 우승후보자로 주목하고 있었다. 결승경기시작부터 김진아 선수는 주도권을 틀어쥐고 자기의 특기기술을 살린 연속 공격을 틀어쥐어 우승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일 맹세를 안고 이약하게 혼란한 그는 국제유술연맹 아부다비그랜드슬램유술경기대회, 국제유술연맹 후회오르그랜드슬램 유술경기대회, 청소년세계유술자경기대회에서도 우승하여 랑후색공화국기를 세계의 하늘가에 날렸다. 본사기자

고려의학적변증치료방법 적극 활용

보건성 피부전문병원에서

공화국의 보건성 피부전문병원에서 여러 피부질환치료에 효과를 볼수 있는 가치있는 의학과기술들을 연구 완성하여 임상실현에 적극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앙외과의 의료일꾼들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선진과학기술자료를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중앙치료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루려는 열정을 과감히 발휘하고 있다. 보건성 피부전문병원에서는 연구성과들을 치료사업에 도입하기 위한 의도기구들도 제작하여 환자치료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종합시험검사소의 장비속과 장, 림프관검사실을 비롯한 의료일꾼들은 자체의 힘으로 성능높은 우드들을 창안 제작하고 임상실현에 구현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우드들을 가지고 치료사업을 해본데 의하면 각종 피부질환에 따라 빛의 색깔이 각이하게 나타나기때문에 신속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과학적인 치료대책을 세울수 있다고 한다. 고려치료과에서도 환자의 체질과 병증상에 맞게 약물치료를 구성하는 고려의학적변증치료방법으로 피부부형치료에서 개선을 가져왔다. 정정혁 고려치료과 의사

국가비물질문화유산 단군제례. 공화국의 비물질문화유산에 해마다 단군절에서 진행되는 개천절기념행사인 단군제례도 있다. 단군제례란 개천절을 맞이하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을 기리어 단군릉이나 단군사당을 비롯한 그의 유적이 있는 곳에서 제를 올리는 의식을 말한다. 우리 겨레는 수천년을 내려오는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숭배하면서 단군제례를 지내어 왔다. 단군제례는 수천년동안 여러 지방들에서 천신제, 태백산제 등의 이름으로 그 명맥을 이어왔는데 고려시기에도 평양의 숭령전과 구월산 삼성사를 비롯하여 각지의 단군사당들에서 해마다 단군제례가 진행되어왔다. 철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신화적인 존재로만 전해도 단군이 실재한 민족의 원시조로 고증되었으며 공화국에서 단군을 우리 민족의 만년재물로 훌륭히 개진되어 해마다 개천절기념행사가 열리고 단군제례가 진행되고 있다. 단군제례는 단군릉의 제상에 제물을 차려놓고 그앞에서 단군성왕을 기리어 목상한 후 단군성왕께 제주를 올리고 조선왕을 세번 한 다음 다시 단군성왕을 기리어 목상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해마다 개천절을 맞이하여 전면 축적된 행사로 성대히 진행되는 단군제례는 해외동포들이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고 있다. 본사기자

《쇠도리깨다!》 (1) 글 리빈, 그림 김윤일. 난 오늘 밤 싸움에서 왜놈 두셋은 더 잡는것데 칼이 깔이 가장 깎다나니 그만 놓쳐버렸단 말이야. 분해 죽였거든, 칼이 창만큼만 길 있어두... <우리 봉산의병대의 장군이 야간기습이라는게 놈들과 영겨들어가는 싸움인데 이런 판에선 그저 막 휘둘러치는 병기라야 제끼이지. 현대 창이란 물건은 휘두르기는 고사하구 하나씩, 하나씩 꼭꼭 겨누어 찌러대면 돼먹었는데 왜 새까만 밤에야 뭐 어디 툭툭히 봐야 어찌지. <그건 사실일세, 휘두르는 병기라던 어방대구 후려쳐두 절절거리면 말이야. 운수좋은 때면 한번에 두어놈씩 따먹고 반달을 만들어 들수 있겠지. > <같은 짤이 적병이 한치만 떨어두 헛갈릴이요 창은 또 잘 보지 않아 번마루 겨늘수 없어 헛갈릴이요, 그저 속만 탈수밖에...> 한밤중 풍력물의 왜군무리를 벌다 치고나서 지진한 할랄로 돌아오는 길에 봉산의병대원들은 자기들이 가진 병장기들의 부족점을 놓고 이렇듯 불만을 터쳤다. 혀 깔깔이던 농군-의병들이 칼이나 창같은 병장기가 어방없이 모자라는 형편에서 저들보다 모든게 우세한 왜군무리들과 맞서다보니 전진을 못하고 밀고당기는 큰 싸움을 벌일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거듭되는 궁리 끝에 생각한것이 재빠른 기동에 의한 불의기습 및 옥박전이었다. 이렇듯 적들과 맞붙어들어가는 전투정황에서 타격반경이 넓은 휘둘러치는 무기의 필요는 실로 절실한것이었다. 길이가 대체로 팔 한길장밖에 안되는 칼이나 대상을 하나하나 따따따로 겨누어 내질러야만 하는 창은 능력상제한이 많았다. 칼과 창이 이런 부족점때문에 낮낮춤에서는 물론 개개 목표가 뚜렷치 않은 야간기습전에서의 헛갈질, 헛갈질이란 무수하기 그지없었다. 하여 헛물켜기에서 힘은 힘대로 다 진하고 잠을 수 있는 적병들을 농쳐버릴뿐 아니라 바로 그것에 자기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때가 얼마인지 모른다. <한쪽 우리 싸움법에 맞는 병장기를 요구하는거야 옹당하지.> 하고 현술이하는 동료

조선화 <씨름>. 두 씨름꾼을 중심으로 거구의 정방형에 가깝게 구경꾼들이 둘러앉은 한 화면구성은 씨름꾼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씨름판의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게 한다. 수많은 인물들의 각이한 모습들을 빼곡이 둘러앉으면서도 시원한감을 느끼게 하는 화면구성과 오른편의 여유있는 공간조사는 화면의 폭을 넓혀주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그림은 화가가 지내고 있던 근로하는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애착과 당시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감정, 락천적인 성격을 진실하게 재현한것으로 하여 조선화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되고 있다. 본사기자. 10월의 절기와 민속. 10월의 절기로는 한로와 상강이 있다. 한로는 찬이슬이, 상강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뜻에서 이르는 말이다. 상강이 지나서부터 날씨는 차지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해지며 추위가 오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가을걷이와 날갈리로 바쁜 계절이다. 그러므로 가을걷이때에는 누구나 바빠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가을에는 부지깥이도 된다.>는 속담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10월월기의 계절적특성에 맞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콩 음식과 추어탕을 들수 있다. 이 시기 즐겨 만들어 먹은 음식에는 평안도지방의 된비지와 콩국, 함경도지방의 콩지짐과 콩나물김치, 황해도지방의 순두부국밥과 두부탕 등이 있다. 농민들은 가을걷이를 앞둔 때에 미꾸라지를 가지고 추어탕을 푸짐히 끓여먹고 기운을 돋구곤 하였는데 특히 개성지방의 추어탕이 유명하였다. 다양한 민속놀이들도 진행되었다.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숨바꼭질, 땅따먹기, 꼬리잡기 등이 이채를 띠었다. 올해의 한로는 10월 8일, 상강은 10월 23일이다. 본사기자

